

News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 상단 12년 만에 6% 돌파

연합뉴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오르며 주요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이 약 12년 만에 6% 넘어서...

주요 4개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16일 기준 연 4.010~6.208%... 작년말 대비 상·하단이 각각 0.620%p, 1.481%p 상승

금융당국, 은행에도 취약층 채무조정 유도... 대출원금 최대 90% 탕감

조선비즈

금융당국, 은행권 상대 윤석열 정부의 민생금융지원 사업인 새출발자금 대상에서 빠지는 취약 차주의 대출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채무 조정 유도

당국은 은행들이 새출발자금에 대상 차주들을 넘긴 뒤에도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차주들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라는 판단... 개인의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도...

연 5% 향하는 보금자리론... '50년 만기'로 상환 부담 줄인다

한국금융신문

보금자리론, 이달 현재 최저 연 4.50%, 최고 연 4.85% 금리에 판매 중... 반면 만에 금리 하단과 상단은 각각 1.5%p, 1.45%p 급등

적격대출도 연 4.85%로 금리 책정... 글로벌 긴축 움직임에 국고채 금리가 치솟았기 때문... 하반기 중 연 5%를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

은행·금융지주 선순위 채권 '완판'... "물량 더 늘려라" 요청 빗발

한국경제

주식시장 변동성 커지며 개인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에 물리는 경향... 삼성증권, KB·우리·농협의 선순위 채권 3종을 총 300억원 한도로 선착순 판매했는데 27분만에 완판

판매 후에도 일부 고액 자산가와 PB의 추가 판매 요구가 빗발쳐... 채권금리 상승하며 유통 가격이 발행 당시 가격보다 낮아졌기 때문

문제 비급여 잡는다...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

e대한경제

생보·손보험회, 보험사기 근절 및 건전한 보험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기 특별신고 대상을 기존 백내장 포함한 문제 비급여로 확대... 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

백내장 포함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으로 확대... 경찰은 최근 보험사기 증가에 대해 10월 말까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 벌일 예정

보험사 효자 노릇하던 변액보험, 증시 침체에 부메랑

MTN

증시가 2300선으로 내려오자 변액보험 상품에 대한 관심과 수익률 급감... 1분기 생보사들의 변액보험 신계약건은 60,300건으로 전년동기대비 절반 수준

작년과는 다른 분위기로 변액보험 수요 감소로 생보업계 실적 악화로 이어져... 늘어나는 변액보험 보증준비금도 또 다른 부담

뮤직카우 음악저작권 매매, 이젠 '키움증권 계좌'로

디지털타임스

뮤직카우, 키움증권과 투자자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MOU를 이번 주 중으로 체결할 계획... 투자 매매 자금은 키움증권의 투자자 개인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

금융위에서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 및 신탁하도록 해... 은행 계좌도 검토했으나 신탁의 필요성이 더 중요해 증권사와 합의하게 되었다고 설명

금융당국, 국내 소수점거래서 ETF는 제외...실효성에 고민 깊어진 증권가

조선비즈

금융당국, 올해 안으로 국내 주식 소수점거래 활성화한다는 방안 내용은 가운데 ETF는 그 대상에서 제외... 실효성 논란

중개업자로 선정된 증권사는 총 24곳으로 9월부터 인프라 구축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 개시한다는 계획... 다만 기대만큼 효과 크지 않을 수 있어 업계는 고심 중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